

# “20조 메가펀드로 전북 경제 대전환”

### 민주 이원택 의원, 지역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구상안 발표... “지역 기업 키우는 내발적 발전 전략 실현”

민선 9기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20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을 통해 전북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의원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의존형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전북 자본이 전북 기업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실현하겠다”며 “도민이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도민 주주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의 핵심은 총 20조원 규모의 투자 생태계 구축이다. 이 의원은 5조원 규모의 ‘전북 미래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의 ‘국민성장 펀드’ 가운데 15조원을 유치해 전북 경제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전북 미래성장 펀드’는 도와 시·군 지역 금융기관, 도민 참여를 통해 총자본 5,000억원을 마련한 뒤 이를 미중물로 5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된다. 특히 이 중 30% 이상을 도내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 항토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중심의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토종 투자운용사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펀드 운용 시 지역 투자기관 참여를 30% 이상 의무화해 전북 자본이 투자 결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며 “액셀러레이터(AC) 20개사, 벤처캐피탈(VC) 5개사 이상을 육성해 자생적 투자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민 참여 확대 방안도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1일 전북도의회에서 20조 메가펀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전체 출자금의 20%인 1,000억원을 도민 투자 몫으로 배정하고, 전북도가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 일부만 방어하는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000만원 이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디지털 투자 플랫폼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이 의원은 “도민의 1,000억원 투자가 2,000억원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고, 도민이 지역 기업의 주주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경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15조원을 전북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수소산업,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가 주도 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북은 늘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심에서 서서 전북 몫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통과로 기업 유치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규제 특례와 대규모 펀드를 결합해 전북을 기업과 자본이 몰리는 투자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민주당 윤리감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윤리적인 입장의 답변과 함께 자세하게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 팜조아, 익산에 307억 투자

### 도·익산시와 세번째 협약 체결... 익산 제4산단에 입주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농식품 가공 전문기업 (주)팜조아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며 지역 농생명 산업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주)팜조아와 세 번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팜조아는 익산 제4산단에 307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투자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다.

(주)팜조아는 냉동 밀키트, 리얼 스무디 키트, 냉동 채소 등 간편조식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 전문기업으로, 급속냉동 기술과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쿠팡, 마켓컬리 등 주요 유통망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구축했으며, 미국·

캐나다·호주·홍콩 등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는 팜조아의 세 번째 전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팜조아는 2022년 5월 184억 원(고용 19명), 2025년 2월 100억 원(고용 30명)에 이어 이번 307억 원 투자까지 총 59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재투자는 기업 성장과 함께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항토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용 창출과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 연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익산시와 협력해 기업의 투자 이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01만호기자·익산=이재춘기자

# “김관영 도지사 현금 살포 의혹 도당 관련 신고 접수 ‘사실 무근’”

### 민주 도당, 언론 보도에 “유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1일 KBS 보도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 위원장은 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KBS의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김관영 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 20여 건을 조사 중이라는 보도 가운데, 전북도당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는

어떠한 신고도 접수된 바 없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취재를 촉구했다.

앞서 KBS는 1일 보도를 통해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김관영 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약 20건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당은 해당 신고 접수 자체가 없었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01만호기자

# “대구의 변화, 이제 전북이 화답할 때”

### 백승재 진보당 도지사 후보, ‘일당 독점 견제’ 호소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희) 소속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백승재 후보가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정치의 일당 독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후보는 이날 “전북의 선거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닌 위기의 현상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왜곡된 정치 구조를 반드시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마 선언 이후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부표를 해도 달리지 않다는 무력감과 전북 정치에 대한 깊은 실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조 속에서 경쟁과 견제가 사라지고, 정치가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후보는 “이대로라면 대규모 무투표 당선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된 정치 구조는 결국 무사안일과 무책임을 낳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백승재 진보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 독점 견제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대구·영남 지역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보수의 핵심 지역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선도해 온 전북이 오히려 더 일방적인 정치 구조에 갇혀 있다는 점은 뼈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는 전북 정치의 대안으로 ‘민주와 진보의 양날개 정치’를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잘할 때는 힘을 실어주고 잘못할 때는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며 “진보당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

혔다. 또한 “그동안 전북 정치가 양당 중심의 형식적 경쟁에 머물렀다면, 이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진보당이 전북 정치의 새로운 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 대통합과 전북 대부흥을 통해 지역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20만 청년이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정책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백 후보는 “민주당 한쪽 날개만으로는 전북이 제대로 날 수 없다”며 “민주와 진보가 함께하는 정치 구조가 전북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도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전북의 자존심을 살리는 선거를 만들겠다”며 “대구의 변화를 넘어서는 전북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 후보는 향후 도지사로서 추진할 주요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1만호 기자

# “대리비 명목 현금 살포 의혹 엄정수사를”

### 혁신당 도당, “전북 정치 전반에 만연한 관행적 금품 정치 단면” 민주당 향해 “도민들께 공식 사과하고 후보자 자격 박탈을”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대리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대리비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살포한 행위는 명백한 공식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고발과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도당은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청년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그 자체로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리운전비였다든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 이후 지급된 돈을 회수했다는 해명도 대해서도 “사후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제공 사실 자체가 위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금품의 다과를 불문하고 수사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사와 주류 제공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까지 전달된 것은 지역 정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개인인 일탈이 아니라 전북 정치 전반에 만연한 관행적 금품 정치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을 향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유사 행위가 지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향후 선관위 조사 및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01만호기자

# “남부권 교통체증 해소 위해 도로 확장”

###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추진해 하나의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호천지구에서 모악산 관광단지까지 직접 연결되며, 국도 27호선과 연계돼

순창과 완주 방향 차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모악로에 집중되던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남부권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평화동에서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까지 6.5km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원당교차로에서 전주 백제대로와 기린대로를 잇는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01만호 기자

# “행정 통합을 통한 플랫폼 도시 전주 실현”

###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추진하는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며 시민 참여와 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주권형 통합’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통해 ‘플랫폼 도시 전주’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조 예비후보는 1일 오전 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장을 바꿔야 전주·완주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며 현 시정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민선 8회에서 추진된 통합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사람으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전주·완주 통합 성공 방정식이다. 조 예비후보는 통합의 3대 선결 조건으로 △신뢰 회복 △전략 수립 △상생 발전을 제시했다. 우선 신뢰 회복과 관련해 “통합을

전략 수립 측면에서는 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통합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생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선 통합·후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하며 통합하고, 통합하며 발전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피지컬 AI 기업 동반 성장 △인공지능 기반 전북권 문화콘텐츠 공동 기획 등을 제안했다. /01만호 기자

# “중동 전쟁위기 대응 민생 추경 추진”

### 이상길 정읍시장 예비후보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읍시 차원의 시민 1인당 50만원 지원 등을 포함한 긴급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국제 경제 위기는 시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대책과 함께 지방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선 직후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 민생경제회복금의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급 방식을 지역화폐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과 재정 여력 활용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은 속도가 곧 민생”이라며 “정읍이 가장 빠르게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